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복구를 위해 22억 달러 지원을 약속한 후원자들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Central African Republic)의 북음주의 연합 회장은 3년간 내전으로 황폐화된 지역 재건을 위해 국제 사회가 22억 달러(한화 약 2.5조 원)를 약속한 것에 감사를 표했다. 11월 17일, 브뤼셀(Brussels)에서 만난 약 80명의 기부자들이 3년 동안, 위 금액의 후원을 약속하였다.

2012년 12월부터 폭력에 시달린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은 미셸 조토디아(Michel Djotodia)에 의해 움직이는 무슬림 반군 셀레카에 의해 나라가 점령되었고 결국 2013년 3월 프랑수아 보지제(Francois Bozizé) 대통령이 축출 당했다. 조토디아(Djotodia)는 연방정부를 장악했지만 시민들을 죽이고 집들을 태우고, 이

외에도 잔악한 행동을 하는 셀레카 반군들을 제압하지는 못했다. 특히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들의 목표물이 되었고, 무슬림과 모스크들은 넓게 퍼져나갔다. 인권 감시기구는 셀레카 반군들이 수백 명의 사람을 죽이고, 많은 집들을 불태웠음을 전했다. 조토디아(Djotodia)는 2014년 1월에 사임했고, 잠정적으로 캐더린 썸바 판자(Catherine Samba Panza)로 의회에서 교체되었다. 반-바라카는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의 서부에서 인종말살을 행하고 있다. 많은 무슬림과 비 무슬림 또한 이로 인해 죽임을 당하고, 많은 이들이 도망치고 있다. 2014년 7월, 군대는 이웃 나라 콩고의 수도 브라자빌레(Brazzaville)에서 평화 협정을 맺었다.

현재의 싸움은 민병들 사이에서 땅과 자원을 놓고 벌이는 것이라고 미국 국제 종교자유위원회가 2015년 보고서를 통해 발표하였다.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은 기독교와 무슬림 인구로 크게 구분 되어있고, 기독교 민병대는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의 남쪽과 서쪽을 셀레카 반군 연합은 북쪽과 동쪽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은 불안정한 상태 그 자체이다. 폭력은 매일 같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고, 특히 군대에 의해 통솔되는 북부와 동북부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다. 수도 방기(Bangui)에서 북동쪽으로 400km 떨어진 브리아(Bria)에서는 폭력이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달에는 북쪽 외곽지역에 있는 카가 반도로(Kaga Bandoro) 난민 캠프에서 37명의 사람들이 사망했다.

부르셀(Brussels)에서의 모임에 앞서, 영국의 자선단체 옥스팜(Oxfam)은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사람들은 현재와 같은 상황, 즉, 2천 4백만 사람들이 인도적 지원을 받아야 하는 이 상황을 일년 이상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것이라고 한다.

UN의 기금은 연말이 가까워져 오는 이 시점에서 겨우 32%뿐이 남지 않았으며, 아직도 극도로 가난한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하다. 2백만 사람들은 여전히 먹을 것이 부족하고 인구의 65% 사람들이 깨끗한 식수를 공급 받을 수 없으며, 80만명 이상의 사람들은 강제로 집에서 쫓겨나 나라 안에서든지, 이웃 나라에서든지 떠돌이 같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한다.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의 옥스팜(Oxfam) 대표 페란 푸이그(Ferran Puig)는 이번 년도 초에 평화롭게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부분의 지역이 군대들에 의해 통솔되고 있고, 시민 군을 대항한 폭력들이 계속 되어 왔다고 전했다.



수상자들

옥스팜(Oxfam)은 최근에 있던 후원자 모임에서, 평화와 안전, 그리고 경제적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한편으로 후원자들이 장기적인 약속과 유동적인 후원을 하여야 함을 알아야 한다고 전했다. 세계 은행들은 향후 3년동안 5억 달러를 지원할 것을 약속하였고, 농업 분야와 도로 시설과 같은 사업을 통해 이전 구조와 각 처에 흩어진 직업들을 창출을 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은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국가이지만 앞으로는 평화와 안전, 지속 가능한 개발 국가로 발돋움하여 재구성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 4백 80만명 이상이 원조가 필요한 상황